

News

거래 숨통 텔지만 집값 하락 막기 역부족… 못 웃는 비수도권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 해제…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

다만 집값 하락세를 당장 반전시키기엔 한계 있다는 지적… 금리상승으로 매매수요 이어질 여력 없기 때문…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온도차 발생할 것

MMDA 잔액 급감…기업 운전자금도 이자 좋은 정기예적금으로 쏠려

서울경제

5대 은행, 8월 말 MMDA 잔액 총 109조 5,451억원… 1월대비 8개월 만에 5조 4,267억원 빠져나가… MMDA기업과 개인 고객 비중은 8대 2 수준
예치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금리는 최고 0.3% 안팎… 특히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으로 은행권이 즉각 수신금리 올리며 상승세 가팔라져…

금감원, 5조6000억 규모 ‘태양광대출’ 부실 들여다본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총 5조 6,088억원 규모 은행권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해 실태 파악과 부실 여부 점검 착수… 전수 조사와 더불어 건전성 중심으로 내용 점검 지시

KB국민은행, 1조 7,392억원으로 가장 많아… 전북은행 1조 4,834억원으로 뒤이어… 담보 초과 대출이 많은데, 한국전력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잡증지 변경 가능성 때문으로 의심

네이버파이낸셜, 소상공인 맞춤 정책지원금 추천

디지털타임스

네이버파이낸셜, 소상공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정책지원금 공고를 맞춤식으로 추천해주는 정책지원금 추천 서비스 시작

지난 4월 정책지원금 조회 서비스 오픈 후 방문자 수가 오픈 이전 대비 5배 이상 증가… 관련 금융 서비스 적시 이용가능한 사업자 금융지원 서비스도 강화

미래에셋 이어 농협생명도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 다음은?

머니S

NH농협생명, 조만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본허가 신청… 중소 생보사들, 연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 던지는 중… 신한라이프도 본허가 신청 준비 중
금융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농협생명에 대한 예비허가 내릴 예정… 동사는 2023년 하반기 중 마이데이터 사업 진행한다는 계획

삼성·한화·교보 생명, 환헤지에 속앓이

디지털타임스

지난 6월 기준 국내 생보사들의 외화유가증권 총 92조 8,035억원… 전체 유가증권 자산의 16.5% 차지해 생보사의 주요 자산 중 하나

특히 빅3의 외화유가증권 보유액이 커… 삼성생명 18조 5,968억원, 한화생명 15조 4,900억원, 교보생명 15조 4,484억원 순… 환헤지비용으로 손익 악화 우려 가능성 제기

유안타증권 신용공여이자 장사 ‘눈쌀’…증권사 중 최고 연 10.3%

디지털타임스

국내 29개 증권사 중 유안타증권의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이 최고 연 10.3%로 가장 높아… 삼성증권 9.8%, DB금융투자 9.7%, 하이투자증권 9.6%

단기 용자의 이자율도 연 7% 중반까지 상승… 키움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연 7.5%로 가장 높아… 을 상반기 개인 신용거래용자 통해 8,619억원의 이자수익

‘채권형 ETF’로 환승한 개미들… 한달새 433억 사들였다

조선일보

지난달 개인 투자자의 채권형 ETF 순매수 금액 433억원 기록… 2013년 12월 이후 역대 둘째로 많은 규모… 주식형은 443억원 순매도
고금리로 채권 가격 떨어질만큼 떨어졌다고 판단한 개미들이 저가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했다는 분석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